광주은행 고병일 은행장 취임

“기본에 충실…지역과 상생하며 더 높은 도약 이끌 것”

자행 출신 은행장 시대 이어가…취임식서 4대 경영방침 발표
지역경제 생태계 내 영향력 확대·장기 성장동력 발굴 등 다짐
‘100년 은행’ 교두보 마련 제안…조직 내 책임 균형 부여도

복합적인 금융 위기와 유동성 경색이 짙어지는 가운데 14대 광주은행장에 취임한 고병일 은행장은 2일 기초체력을 다지고 내실 성장을 지속하며 도약할 경영방침을 발표했다.

광주은행은 이날 오전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14대 광주은행장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

고 은행장은 자행 출신 광주은행장 시대를 이어가며 “광주은행의 55년 역사를 이어받아 100년 은행의 성장을 꿈꾸는 중차대한 시기에 은행장의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 고물가(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광주은행이 위기를 기회 삼아 한 차원 더 높은 도약을 꿈꿀 수 있도록 앞장서 지휘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고 은행장은 ‘기본이 탄탄한, 역동적인 강소은행’을 내걸고 ‘100년 은행’의 교두보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100년 은행을 향한 최적의 3대 균형점으로는 ‘권한과 책임, 자율과 규제의 균형’을 들었다.

그는 “조직 내부에 적절한 권한 이양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균형, 자율을 부여하겠다”며 “이와 함께 지도자의 책임과 적절한 통제를 잘 조합해 잠재력을 100% 발휘하는 조직을 그리겠다”고 말했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돌파할 핵심어로는 ‘기본’과 ‘고객’ ‘실력’ ‘확실한 경쟁력’을 들었다.

고 은행장은 ‘고객’을 하나의 대원칙으로 삼고 은행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영업조직은 성과를 창출하는 주체로서 고객과의 공감 및 소통을 바탕으로 영업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고, 본부조직은 영업점이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앞으로 추진할 4대 주요 경영방침도 이날 소개했다.

우선 고객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금융지원체계를 펼치고 지역경제 생태계에서 광주은행 영향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지역경제 중심축 역할을 하며 금융의 공공 역할을 강화해 지역경제와 상생 발전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능동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대면·비대면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기능별로 장기 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영업 수단은 장기적으로 대면과 비대면 채널 각각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한다. 대면 업무는 디지털화를 강하게 추진하며 상담형 영업체계로 전환해 고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비대면 업무는 대면과 목표·성과를 분리해 효율성을 높인다.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법으로 비대면 금융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디지털 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업간, 이종 사업간 자료를 결합해 사업별 새로운 가치 탐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이같은 주요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지역 내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밀착경영을 펼칠 예정이다.

고병일 은행장은 1966년 광주에서 태어나 금호고등학교, 전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1년 광주은행에 입행해 임방울대로지점장, 백운동지점장, 개인영업전략부장, 종합기획부장, 영업1본부 부행장, 경영기획본부(CFO) 겸 자금시장본부 부행장을 거치며 영업성과와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광주은행에서 32년간 근무하면서 은행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쌓고, 원만한 대인관계로 금융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인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해양에너지, 무사고 8200일 달성

사고 제로·ESG 경영 실천 결의대회

광주·전남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는 무사고 8200일(2023년 1월3일 기준)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해양에너지 임직원은 이날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본사에서 2023년 시무식을 열고 ‘사고 제로 및 ESG 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윤영 대표이사와 범진기 노동조합위원장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낭독하고, 결의문 선서와 실천 서약서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객센터와 협력업체 대표 등도 참석했다.

해양에너지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함께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

모든 직원은 ‘아차사고 개선 제안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회의 시작 전 ‘안전 한마디’, 매월 4일 ‘안전문화 데이’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올 330억 규모 지원사·입찰 추진

126건 추진 사업 공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일 새해 추진할 330억원 규모 지원사업과 입찰 정보 126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추진할 지원사업은 62건에 180억원, 입찰은 64건에 150억원 규모다.

진흥원은 지원사업 내용·대상·추진 계획과 함께 입찰 관련 과업 기간, 사업 예산, 참가 자격, 방식 등 상세 내용 공개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진흥원은 이날 시무식을 열어 ‘2030 정보통신기술(ICT)·콘텐츠 융합산업 매출 10조원, 일자리 5만개 창출’ 비전도 공유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타행 이체 수수료 전면 무료

신한은행, 은행권 경쟁 불붙여

금융권의 비대면 영업장이 넓어지면서 은행권 수수료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건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부터 모바일 뱅킹 앱 ‘뉴쏠(New SOL)’과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했다.

그동안 이체 수수료 무료화는 인터넷은행이 적극적이었으나 시중은행이 전면 무료를 선언한 건 처음이다.

지금까지 신한은행 이용자는 모바일·인터넷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씩 수수료를 내왔고 거래 실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이용자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25.67 (−10.73)
↓	코스닥	671.51 (−7.78)
↑	금리 (국고채 3년)	3.782 (+0.060)
↑	환율 (USD)	1272.60 (+8.10)

새얼굴

“연금개혁 필요성 지역민에 널리 홍보”

윤중선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장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광주·전남 지역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가교 구실을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에 지난 1일 취임한 윤중선(49·사진) 본부장은 취임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윤 신임 본부장은 곡성 출신으로, 숭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학교 사회정책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지난 1998년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해 본사 국제업무부장, 예산조직부장, 국민소통실장, 노후준비지원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민의 생활복지 향상과 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전문가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조직 안에서 평가되고 있다.

윤 본부장은 “신뢰받는 국민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의 발전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청렴·안정 등 경영혁신 개선에 주력”

조영호 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

“신 농정방향과 기후변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4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에 지난 1일 취임한 조영호(56·사진) 본부장은 이같이 취임 포부를 밝혔다.

조 신임 본부장은 화순 출신으로 광주 서석고등학교와 조선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2년 공사에 입사해 목포·무안·신안지사장, 감사실장, 경영지원처장, 자산재무처장 등 공사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경영·재무·감사업무 등을 하면서 경영 분야 전문성을 쌓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본부장 “청렴, 안전을 위한 경영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